

삼성 "프로포폴 불법투약 없었다"

"상습적으로 투약한 정황이 있다" 병원직원 지인이 권익위에 신고 검찰 수사...삼성 "법적대응할 것"



이재용 부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프로포폴 상습투약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삼성전자가 "불법 투약 사실이 없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이 회장에 대한 의혹은 13일 탐사보도 전문매체 뉴스타파 보도로 알려졌다. 뉴스타파는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 직원 지인의 제보를 토대로 이 부회장이 2017년 프로포폴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정황이 있다고 보도했다. 이 지

인은 관련 의혹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고, 권익위는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최근 대검찰청으로부터 해당 사건을 넘겨받아 권익위 공익신고 자료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는 이에 대해 13일 공식 입장문을 내고 "불법투약 사실이 전혀 없다. 앞으로 검찰수사를 통해 진상이 명확히 밝혀지기를 바란다"며 "뉴스타파 보도는 다툼이 있는 관련자들의 추측과

오해, 서로에 대한 의심 등을 근거로 한 일방적 주장이다"고 밝혔다. 과거 병원에서 의사의 전문적 소견에 따라 치료를 받았고, 이후 개인적 사정 때문에 불가피하게 방문진료를 받은 적은 있지만 불법투약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삼성전자는 이어 "해당 매체에 대해 악의적인 허위보도 책임을 물어 민형사상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다"며 "추측성 보도는 당사자는 물론 회사, 투자자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사실이 아닌 보도가 확대 재생산되지 않도록 수사결과를 차분하게 지켜봐 주길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이동통신 기업들이 콘텐츠 기업과 손잡고 가상현실(VR) 콘텐츠를 늘리고 신기술 도입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SK텔레콤이 벤처게임회사와 함께 선보인 '크레이지월드VR' (위)과 KT가 3월 공개하는 8K 스트리밍 상용 서비스. 사진제공 | SK텔레콤·KT

이동통신 기업들 가상현실 꽃혔네

SKT, 게임벤처와 콘텐츠 제작 KT는 8K VR 스트리밍 상용화

이동통신 기업들이 가상현실(VR) 콘텐츠와 기술 도입에 힘을 쏟고 있다.

SK텔레콤은 게임사, 스타트업과 손을 잡고 VR 콘텐츠 제작에 속도를 내고 있다. VR 벤처게임회사 픽셀리티게임즈와 넥슨의 인기 캐릭터 다오와 배찌 등이 등장하는 '크레이지월드VR' 베타 테스트를 13일 시작했다. 한 공간에서 50명 정도가 실시간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다. 헤드 마운트 디스플레이(HMD) 기기 오퍼러스고 사용자는 오퍼러스 스토어에서 별도 회원가입 없이 테스트에 참여할 수 있다. 기간은 4월 9일까지다.

SK텔레콤은 또한 용인세브란스병원의 정신건강의학과 박진영 교수팀과 30~40대 직장인들의 스트레스 경감을 위한 힐링VR 영상 '마인드풀니스' 12편을 공동제작해 공개할 예정이다. 인공지능(AI)기반 에듀테크 스타트업 마블러스와 VR기반 어학시뮬레이션 콘텐츠 '스피킷'을 점프VR에 공개했다.

KT는 개인용 VR 서비스인 슈퍼VR을 통해 3월부터 8K 스트리밍 상용 서비스를 세계 최초로 제공한다 고 13일 밝혔다. 무선 네트워크 환경에서도 기존보다 4배에서 5배 향상된 고해상도 8K VR 콘텐츠를 감상할 수 있다.

이밖에 KT는 VR 콘텐츠 제작사 아바엔터테인먼트와 함께 경북궁, 태권도 등 한국 대표 문화재와 K팝 등을 소재로 다양한 8K VR 콘텐츠를 제작해 연말까지 100여 편의 콘텐츠를 확보할 예정이다.

한국건설경영협회장에 하석주 대표 선출

하석주 롯데건설 대표이사(사진)가 13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국건설경영협회 2020 정기총회에서 회장으로 선출됐다. 건설경영협회는 1992년 출범해 현재 국내 건설업계를 대표하는 24개 대형건설사를 회원으로 두고 있다. 회원사 대표 만장일치로 선출된 하 대표는 2023년 2월까지 3년 동안 회장으로 활동한다. 하 대표는 1983년 롯데건설성유에 입사해 롯데그룹 기획조정실을 거쳐 롯데건설 경영지원본부장과 주택사업본부장 등을 역임하고 2017년 3월부터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MWC 2020', 코로나19 여파로 취소

코로나19 확산으로 24부터 27일까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세계 최대 이동통신 박람회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 2020'가 결국 취소됐다. 13일 주요외신에 따르면 존 호프먼 세계이동통신사업자협회(GSMA) 회장은 성명을 내고 "바르셀로나와 개최국의 안전한 건강을 위해 MWC 2020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LG전자와 인텔, 엔비디아, 아마존, 소니, 페이스북 등 주요 참가사들은 최근 안전을 이유로 MWC 불참을 선언했다. 김명근 기자

"코로나19 때문에..." 메이크업 체험 줄고, 홈 피팅 늘고

아모레·세포라 등 뷰티체험 중단 집에서 옷 배송 받은 후 구매결정 건강기능식품 매출 579% 늘기도



고객에게 색조 테스트 종이 사용을 안내하는 CJ올리브영 직원. 코로나19 확산 여파가 뷰티·패션업계의 풍경을 바꾸고 있다. 사진제공 | CJ올리브영

코로나19 확산 사태가 유통업을 넘어 뷰티·패션업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먼저 뷰티업계에서는 헬스&뷰티(H&B) 스토어들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CJ올리브영은 최근 매장에 색조제품을 테스트할 수 있는 테스트용 종이를 비치했다. 색조 화장품은 특성상 직접 피부에 발라보는 체험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직접 접촉이나 대면을 꺼리는 '연락트 소비' 성향이 강해지면서 고객들이 이를 꺼리자 대안으로 테스트 종이를 갖추고 있다. 올리브영은 또한 전국 모든 매장에서 고객 접촉이 많은 출입문과 매대, 테스트 등에 하루 9회 이상 소독도 하고 있다.

역시 헬스&뷰티 매장인 롯데홈은 온라인몰에서 화장품이 아닌 바이러스 면역력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 매출이 크게 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한 1월 27일부터 2월 11일까지 홈플러스 온라인몰의 건강기능식품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579%나 증가했다. 뷰티 매장의 필수 서비스로 꼽히던 메이크업 체험도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인해

일시중단했다. 아모레퍼시픽의 체험형 매장인 아모레 성수는 무료 일일수업 '메이크업 클래스'를, 글로벌 화장품 편집숍 세포라 역시 15분의 무료화장 서비스인 '뷰티플레이'를 중단했다. 행사도 차질을 빚고 있다. 로레알 비오템움르는 7일 시코르 강남역점서 진행하려던 모델 류준영의 팬사인회를 취소했다. 현재 봄시즌에 맞춰 3월에 예정된 행사가 많아 뷰티업계는 이번 사태의 장기화 여부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패션에서도 소비자들이 외부활동을 자제하면서 온라인몰의 홈 피팅 서비스를 찾는 사람이 늘고 있다. 홈 피팅 서비스는 매장에서 옷을 입어보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 배송받아 입어본 후 구매를 결정하는 서비스다. 온라인패션몰 한샘닷컴의 경우 1월 28일부터 2월 9일까지 홈 피팅 서비스 오프의 매출이 8% 늘었다.

정정욱 기자 jiy@donga.com



"해외패션 브랜드, 할인 받아요" 현대백화점이 전국 5개 점포에서 순차적으로 '해외패션대전'을 진행한다. 목동점·판교점(2월12~16일), 대구점(2월13~16일), 부산점(2월20~23일), 천호점(3월6~8일) 순이다. 총 170여 개 해외패션 브랜드가 참여하며 최대 60% 할인 판매한다. 정정욱 기자, 사진제공 | 현대백화점

물 들어올 때 노 젓자...서울에 '기생충 투어' 생긴다

자하문터널 등 촬영지 팸투어 채비 '봉준호 촬영장소' 관광코스 개발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이 기획하고 있는 영화 '기생충' 촬영지 탐방코스. 사진제공 | 서울관광재단

칸 영화제 그랑프리과 미국 아카데미상 4광왕을 수상하면서 세계적인 신드롬을 일으킨 영화 '기생충' 투어가 서울에 등장한다.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대표이사 이재성)은 13일 '기생충'의 대표적인 서울 촬영지를 영화 전문가와 함께 돌아보는 팸투어를 기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단 이벤트 성격의 팸투어를 진행한 후 이를 정규 관광코스로 개발하는 방안도 구상하고 있다. '기생충'에는 기택의 가족이 폭우 속에 뛰어들던 종로구 자하문 터널 계단을

비슷해 마포구의 돼지쌈슈퍼, 동작구 스카이프자 등 서울의 여러 곳이 중요한 장소로 등장한다. 이들 촬영지는 지난해 12월 서울관광 홈페이지(http://www.visitseo.ul.net/)를 통해 소개되면서 6만 뷰를 돌파



코로나19 확산에 숙박·항공 앱 사용 ↓ 홈쇼핑 4%·식음료판매 앱은 12% 증가

코로나19 확산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의 사용 패턴도 바꿨다.

아이지아이웍스의 모바일 빅데이터 플랫폼 모바일인덱스가 앱 사용 조사 결과(사진) 숙박과 항공, 교통, 카셰어링, 영화관 등은 사용자가 줄었고, 마트와 식음료판매 등은 늘었다. 1월 평균 주간 사용자 수 대비 2월 첫 주(3~9일) 사용자 수(WAU) 기준으로 영화앱은 34%나 줄어들었다. 이어 숙박 앱 21%, 해외 숙박 앱 25%, 항공사 앱 21%, 대중교통과 카셰어링 앱은 14%씩 사용자가 감소했다.

반면 식음료판매 앱은 12% 급증했고, 홈쇼핑과 마트 앱은 4%씩 증가했다. 세계 확진자 발생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우한폐렴위험지도' 앱은 5일부터 9일까지 평균 일간이용자가 3만5864명을 기록했다.



곤지암리조트 '레이트 스키' 프로모션

경기도 광주 곤지암리조트가 19/20시즌 영업종료일까지(영업종료일 미정) '레이트 스키'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요금 할인과 패키지 상품 두 가지 콘텐츠로 마련했고 매표소에서 현장결제 시 적용된다. 전국의 스키장 시즌권을 보유하면 누구나 리프트권을 40% 할인된 금액으로 이용할 수 있다. 곤지암리조트 시즌권자에게는 동반 1인도 함께 40% 할인한다. 또한 금요일 오후 9시부터 심야스키를 즐기는 스키어에게는 리프트권을 35% 할인하는 '금요일 야간할인'을 제공한다. 김재범 기자

※ 교육·퍼즐은 13면에 실습니다.